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61호
11월 16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WCC·WEA’ 대처 등 한기총 정상화로 복귀 결정

예하성, 한기총 회원 복귀

한기총...제35-8차 임원회 열고 복귀 청원 만장일치 결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이하 예하성)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회원으로 복귀했다.

예하성은 조용묵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가 소속된 교단으로 한기총은 7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8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 20명, 위임 3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회원 복귀의 건으로 복귀

청원서를 제출한 예하성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았다.

예하성은 원래 한기총 회원이었지만, 과거 한기총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동안 활동하지 않다가, 최근 한기총이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WEA·WCC 등에 있어 신학적 비판과 확실한 반대 입장과 보수적 정체성을 분명히 표명하여 복귀의 의사가 있었다.

그 가운데 지난 제35-8차 임원회에서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으로 미납회비를 감면하는

완화 제도를 통하여 이번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12월 20일(금) 롯데호텔에서 있는 한국교회의 밤 예산의 건은 각 회원 교단이 필요한 재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화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화장 조운희 목사가 기도하고, 전임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은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6회 임원회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 단호히 배격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수호 적극 지지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온소망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6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순복음복원교회(담임 최정식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장동근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23:1-3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이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되어야하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묵화하는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윗과 같은 목회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로 2024년도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 2025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10월 3일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온·오프라인 참여, 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과 기타사항으로 한기총 복귀 청원 건과 노숙자선교위원회 겨울난방비 지원, 2024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등이 보고되었으며 11월 14일(목)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되는 제73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가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로 하여 각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날로 정한 이날 이후로 온라인으로도 계속 많은 기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며 지금은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며 급변하고 요동하는 국내외의 경제와 극심한 자연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국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현재 거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의견을 전하여 기도의 확산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단호히 배격하고 성경적 신앙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배격되는 제도 및 법률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수호를 적극 지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조용묵 목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인 이후 인류 역사는 다름과 살인 이야기로 점철되었고 피로 얼룩졌습니다. 인간사회에는 어디에나 반목, 대립, 다툼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고 화평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격이 각양각색이며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킵게 됩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일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노하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롬 12:18,19)

신앙의 절개를 굽히는 일이 아니라면 애써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불의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면 함써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낱말이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얼마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불화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심이 생기고 관용할 마음도 생기고 해결책도 쉽게 찾아내게 됩니다. 주님 면전의식을 가지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된다면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이가 좋지 않고 반목상태에 있는 이웃들을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하는 당사자들을 내버려두면 반목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격렬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투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면 좋은 말만 전달해야 합니다.

다. 지혜와 노력,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서 활약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해와 미움의 잡초를 뽑아 주고, 이해와 평화를 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이웃 사이에 용래하며 평화를 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불 못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 중에 최상 최고의 직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점차 누릴 부유함과 행복과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특히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부흥사 먼저 성령충만, 복음 전하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11월 4일(월)~5일(화) 1박 2일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오순절기도원(원장 김지훈 목사)에서 개회 모임을 갖고 가을산행 기도회를 실시했다.

산행기도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부흥사회 지도교문인 신재영 목사는 창 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부흥사들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역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부흥사들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소재 산에 올라 ①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②한국교회와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③교단발전과 정책위원장님을 위하여 ④총회장님과 임원 및 교단 교회들을 위하여 ⑤교

단 부흥사회의 역동적인 사역과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⑥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 확산저지와 동성애, 동성혼 허용 반대 및 반 성경적 악법 저지를 위하여 ⑦한국교회 기도의 날 온라인기도회의 불씨가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먼저 부흥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깐의 힘과 협력의 시간을 통해서 영과 육을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선교적방송 정체성 잃지 않기를

CTS 공동대표이사 김영걸·김종혁 목사 취임

CTS기독교TV는 지난 11월 7일(목) 서울 노랑진 CTS아트홀에서 제28대 공동대표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영걸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종혁 총회장이 신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CTS 제25대 공동대표이사였던 류영모 목사가 설교했으며, 제27대 공동대표이사 임기를 마친 예상 합동 직전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취임명패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깃발을 김영걸·김종혁 신임 대표이사들에게 전달했다.

김영걸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공교단과 공교회를 대표하는 CTS가 선교적 방송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혁 총회장도 “CTS가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9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CTS가 미디어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CTS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내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등 CTS의 주요 사업과 행사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CTS가 앞으로도 성경적 진리와 복음의 빛을 미디어를 통해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세상과 교회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개척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제주행복선교회, 제2회 제주 목회자 행복축제

후원금, 오찬, 경품 등 은퇴목회자와 어려운 목회자들 섬겨

사단법인 제주행복선교회(이사장 오공의 목사)가 주최하는 ‘2024년 제2회 제주 목회자 행복축제’가 11월 1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은퇴 목회자 부부와 어

려운 교회 목회자 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어 후원금과 경품, 오찬 등을 제공했다.

현승학 목사(부이사장, 서울 청담아름다

운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신관식 목사(후원이사, 법환교회)가 전도서 4장 9-10 말씀을 본문으로 ‘둘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선배 목회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둘이 하나보다 낫다. 둘이 같이 있으므로 더불어 동역하여 삼단이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다락 목사(후원이사, 세계평화의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가 축사를 전했다. 김애숙 정부부지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목회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에 감사를 드린다”며 “제주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46회 ACTS 선교대회 개최

선교보고와 선교포럼 통해 46주년 되새겨

아신대학교(ACTS, 총장 정홍엽)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땅끝에서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46회 ACTS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학교 설립 초기인 1976년 9월 제1회 아세아선교의 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회째 이어지고 ACTS 선교대회는 개교 50주년 회년을 맞이하여 땅끝을 향해 나갔던 50여 명의 동문 선교사들이 모교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응원해온 ACTS 가족들과 다시 만나 땅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선교대회 첫날 23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9개 선교단체(GMP개척선교회, WEC국제선교회, 비전선교단, 한국오엠, 선교한국, 한국SIM국제선교회, 한국오엠에프, 한국컴미션, 호프선교회)가 각 선교단



체의 활동들을 소개하여 학생들과 참가자들에게 선교 비전을 새롭게 마음에 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날인 24일 드러진 선교헌신예배는 국기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아신대학교 타문화권 사역자회(ACSA)의 회장 김광배 선교사의 개회기도와 소속 선교사들의 특송, 국제

교육원 원목 이명석 교수의 헌금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GMP이사장 정민영 선교사의 축사, 아신대와 미국 풀러신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선교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아신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 박기호 교수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월드비전, 빈곤청년자립연구 공유회

청년 공감 위한 토크 콘서트로 열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저소득아동지원사업 종결 이후 성인이 된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공감·빈곤청년자립연구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채

그로 북카페에서 열린 공유회는 주영선 명지대학교 교수의 빈곤청년자립연구 결과 공유와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저자 강지나 작가의 강연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빈곤청년 자립의 주요 어려움에 공감하고 맞춤형 및 실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축구하고자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이번 공유회에서는 강지나 작가, 주영선 명지대학교 교수, 2023 빈곤청년 자립 연구 조사에 함께 참여한 김은지 청년을 포함한 현장참여자 50명 및 온라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지나 작가는 저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활용한 강연을 통해 연구를 위해 만난 가난한 청소년들의 삶의 과정을 기록한 10년에 대해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빈곤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지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도자협, 신임교단장·총무 감사예배

신임교단장들 한국교회 위해 헌신할 것 다짐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장로지도자협의회(회장 이강욱 장로)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신임교단장·총무 축하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8일(월) 오전 11시 코리아나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할 신임 교단장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 사회로 성중경 목사(만수감리교회 원로)의 대표기도, 김성애 목사(한국사명자선교연합회 여성총재)의 성경봉독, 군포제일교회 송암어린이합창단의 특별찬양, 공동회장 권태진 목사의 행 27:20-26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권 목사는 “교단을 이끌어 가실 교단장과 총무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의지해야 한다. 명예와 권력



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목회자는 성직자이다. 그러기에 주님 곁에 가신 골고다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직자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 예언자 노릇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취임한 교단장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한국교회

를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특별기도순서로 공동회장 민승국 목사가 ‘민족복음화와 세계 평화’, 공동회장 노희석 목사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공동회장 김태곤 목사가 ‘한국교회와 자유평화 통일’, 공동회장 김탁기 목사가 ‘신임교단장 총무 사명감당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세계 기독교 K-성지 착공 감사예배

“참된 신앙의 본질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세계 기독교 K-성지’ 현장예배 및 착공 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일(토) 충북 진천로 초평면 소재 현장에서 드려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염신형, 임동진 목사를 비롯해 교계 인사와 지역 유지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진천에서 시작되는 ‘세계 기독교 K-성지’ 프로젝트는 현대 한국 기독교의 선교적 비전과 문화적 창의성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며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공간이자 영적 체험과 교육의 장이다.

계획된 시설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성경의 현장을 체험하고 믿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교육의 장으로 건축되는 십자가 발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조성되는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로, 갯세마네 동산은 기도와 묵상의 공간으로, 요단강은 세례와 거듭남의 의미를 체험하는 장소로 방문객들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예장(열린)총회, 제24회 정총 성료

총대원 성령충만을 위한 부흥성회도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열린) 총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가평읍 달진리 소재 가평오련빌리지에서 ‘오직 예수(롬 12:14-21)’라는 주제로 제24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총회장에 김신욱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는 이날 제24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사업계획도 확정 통과 시켰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무 정은숙 목사 사회로 경기노회장 관숙자 목사의 대표기도, 중부노회장 윤희숙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이명숙 목사의 막 14:3-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유정애 목사의 헌금특송, 회계 정복이 목사의 헌금기도, 초대총회장 유순임 목사의 격려사, 총무 정은숙 목사의 광

고 후 총회장 이명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서기 임순옥 목사의 집례로 분별과 분자의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회무처리는 의장 이명숙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되어 개회선언을 함으로써 회무처리가 시작됐다. 회의는 계속해

총회보고를 비롯한 서기, 회계, 각부, 각노회 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하는 한편, 24회기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유정옥·권희경 목사의 선교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총회기간 중 영적합양을 위한 부흥성회와 새벽예배도 개최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전국을 찾아가는 국토순례전도

한·미 공동으로 찬양메시지로 복음전파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돌며 대한민국 전국 시와 명소 등 60여 곳을 직접 찾아가 선포와 외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국토순례전도가 시작됐다.

맨하탄선포외침전도단(단장 김희복 목사)과 (사)예심선교회 순회전도단(단장 조정임 목사)이 공동 주최한 ‘제50차 한·미 국토순례’가 지난 10월 22일 서울역에서 시작

하여 11월 2일까지 11박 12일의 국토순례전도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국토순례전도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와 일본, 미국으로부터 20여 명의 맨하탄선포외침전도단이 모였고, 국내에서는 예심순회전도단 30여 명이 함께함으로 50여 명의 전도단이 꾸려졌다.

순례전도단은 대형버스 한 대로 이동하



며, 각 지역마다 예심선교회 지부 전도사관 학교 학생들이 협력해 동참하게 된다. 특히 이동하는 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는 찬양훈련과 메시지훈련, 기도훈련이 진행되어 전도자들을 먼저 성령충만으로 이끈다.

선포외침 전도가 이뤄지는 각 현장에서는 먼저 선포기도로 시작해 에어로본 연주와 찬양, 광장 및 사거리 외침전도, 복음전도 메시지 선포, 길거리 행진 전도, 전도지 배포, 마감기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맨하탄선포외침전도단 단장 김희복 목사는 “제가 섬기는 뉴욕주찬양교회에 발판이 되고, 두나미스신학대학교가 모체가 되어 전도에 올린 사람들이 맨하탄선포외침전도단을 결성했다”라며, “2017년부터 미국을 순회하며 선포외침전도를 진행했고, 미국을 한 바퀴 반을 돌았다.

■ 생명의 말씀 ■



김 바 울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담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23)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순간 천국문은 닫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좁은 문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5)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7절에도 나오는데 27절에는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이나를 떠나가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악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빗자한 우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예로 든 것은 오직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호렘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알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출 32:1-2). 놀라운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제사장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록부

음을 받은 아론이 말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 한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시험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

드디어 시험이 벌어졌고 먼저 바알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린 뒤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로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말 못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는데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이 때 성경은 여호와와 제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와 말씀이 합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왕상 18:31)

야곱이 믿었던 신앙의 근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와 제단의 다른 점은 예배 방식이 아니라 그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말 못하는 우상인가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는다면 구원받은 신앙이지만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근원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예수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따르는 종교지도자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말씀(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29). 하지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30)고 말씀하십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분명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중 된 자로 밀려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톨릭교회가 먼저 된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지금은 나중된 자로 밀려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믿었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빗자하는 종교지도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지만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천국문이 닫혀있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종교적 신앙을 버리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롬^^ 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동 정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



세계CEO전문인선교회(대표 박형렬 목사, WCPM)가 지난 11월 7일(목)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2024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WCPM은 매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과 문화명령에 충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기독교인, CEO, 실업인, 의료인, 법조인 등을 발굴해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앤디 김, 한국계 최초 美 상원의원



미국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11월 5일 AP 통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배스 후보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으며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은 개표가 62% 진행된 시점에 54.3%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기감 행정총회 ‘퀴어신학’ 이단 규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행정총회가 지난 10월 30일(수)~31일(목) 서울 광림교회(담임 김경석 목사)에서 ‘희망, 도약, 동행-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제 44)’라는 주제로 열렸다. 31일에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대위원장 이용원 감독은 보고에서 퀴어는 성소추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했다.

강성태 포괄적차별법 문제 지적



유튜브 구독자 100만에 가까운 ‘공부의신 강성태’ 채널 강성태 대표가 자신의 채널에 ‘차별금지법, 지옥이 울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타감사’ 전한길 씨에 이어, 인기 강사를 사이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강 대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력서에 대학원 학력을 쓰지 못하게 생겼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논 평

한국교회언론회

신천지의 임진각 평화누리 종교 행사는 기만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알려지고, 2020년 ‘코비드19’ 때는 특이한 종교 행사로 집단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양산시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신천지예수교교회: 교주 이만희)가 11월 5일 이례적으로 신문 지상(紙上)을 통하여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여 신천지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장소 사용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이 입장문에서 자신들의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다며, 논리의 비약(飛躍)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에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이비 사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기존의 정통 종교와 같은 입장에서 권리를 누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천지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런가? 정통 종교인 줄 알고 속아서 들어갔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교(邪敎) 집단이 대규모로 물려와 행사를 한다면 파주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불쾌하겠는가? 그렇다면 신천지는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또 이 행사는 당초에 ‘민족통일불교종양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대관을 신청한 것인데, 왜 신천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신천지조차도 스스로 내세우기 부끄러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방증(傍證)이 아닌가? 그리고 언제부터 신천지가 불교 단체로 편입된 것인가?

그리고 신천지의 대규모 행사 홍보는 국민들과 신천지 내부조차 기만하는 것이다. 신천지는 ‘10만 명 수료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한 것이 벌써 4번째이다.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이번에는 11만 명이 수료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천지 신도는 거의 7~8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에게 의하면 수료식에 중북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찌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신들의

내부까지 기만한단 말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천지의 이런 행동은 ‘내부결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93세의 교주인 이만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코로나 때 많이 빠져나간 신도들을 보충하려는 몸부림이고,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온다는 허황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향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런 사교 집단에게 시민들의 문화와 평화의 공간을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파주 시민들과 경기도민들도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가 아무리 ‘종교’로 가장해도 사교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충북지방회 월례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11월 11일(월) 생명생교회(정재광 목사)에서 지방회 11월 월례회의를 갖고 민족의 복음화와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최은성 목사(승리하는교회)의 사회, 유광진 목사(늘푸른교회)의 기도, 정재광 목사의 설교,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정재광 목사는 렘 7:21-26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



배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물어보며,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12월 2-3일에 있는 송년회 여행 설명회를 갖고, 총회와 지방회와 환우 교역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회의를 마쳤다.

예수사랑교회 확장 이전 감사예배 성료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11월 4일(월) 예수사랑교회(담임 한정숙 목사) 확장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서기 김찬에 목사(추계교회)의 대표기도, 조한음 형제의 특송,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한서북교회)의 막 8:31-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자기부인, 자기십자가’라는 제목의 설



교, 전임 지방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축사, 전임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권면, 지방회 재무 박안나 목사(화평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순

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인사말을 전하고, 전임 지방회장 류승창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경기북지방회 월례회

경기북지방회(지방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온 선교회(담임 문찬우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강인덕 목사의 사회로 박웅진 전도사·이상수 전도사의 찬양 인도, 예정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경진 목사는 렘 43:5-7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맘대로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오늘날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이 정도까지 순종하면 되겠다고 하는 내 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본다.”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희망도 없고, 답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탁정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은혜가운데 처리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 예수온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목회단상



유봉수 목사
예하성 정책위 부위원장

해가 동쪽에서 떠서 반드시 서산으로 지듯이, 우리네 인생도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주부(主婦)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와 그 속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유교에도 초혼(招魂)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혼이란 발상(發喪)하기 전에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의식으로서,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당한 상제(喪祭)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나가는 혼을 다시 불러 집안에 위패를 두는 장소로 모셔서 매일 제를 올리는 예법입니다. 민속 문화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을 생득적(生得的)으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불리던 이여형 교수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육체와 영혼의 세계를 주제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 부인양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내세를 생각지 않는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간혹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술 취하고 방탕한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버리시는 않지만 지난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바로 잡으시면서 품으십니다. 과거는 용서 받

지 못할 죄 속에서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44, 45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언급해서 말씀하시며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에서 언행에서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러 목사님들이

행위입니다.

경건의 뜻은 단순히 말하자면 공경(恭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태도로 드러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본인의 남편분이 평소에는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지난 번 코로나 기간 중 집에서 TV로 비대면 예배(un-tact service)를 드릴 때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좌정한 뒤에 경건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고 남편을 크게 칭찬한 바 있습니

이제는 이렇게 삽시다

레위기 11: 44

나라를 사랑하려면 가능한 대로 결혼하고 출산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혹은 인구절벽이라는 이슈는 세계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국가적 재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도 정부의 정책이나 마스크의 캠페인이 아닌,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단체로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어느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 조금 지나친 농담을 나누고 있을 때 선배 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좌중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있던 한 젊은 후배 목사님은 그날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할 때 마다 조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육을 하셨으니까 나도 육을 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나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정제한 것이지 아무에게나 대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다. 그렇습니다. 국가 원수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연설할 때, 또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나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공손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선전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예의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둘째로 이제 성경대로만 믿고 삽시다.

“이단(異端)이란 처음 시작은 같으나 끝(端, 비를 단, 끝 단)에 가면 다른 것이다. 라

는 말씀을 신학교에 다닐 때 이단론을 강해하시는 교수님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즉 처음은 예수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예수를 사칭한 짐승 같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모두 사기꾼이요 가짜로서 흑세무민(黑世誣民)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Pluralism)를 강요하는 교수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엔 예수님이 구세주요 현

재는 현재에 맞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며 교회와 세상을 혼잡하게 하니, 실로 누가복음 18:8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는 자들’만이 구원 받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멸망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셋째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

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별이 그려진 국기를 소중히 여기듯이. 또 나라를 사랑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나라발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없 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IT 시대의 모든 역량을 잘 활용하면 전 국민이 여러 곳에서 다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려면 가능한 대로 결혼하고 출산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혹은 인구절벽이라는 이슈는 세계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국가적 재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무서운 힘을 가진 민족입니다. 과거 IMF로 나라경제가 흔들리고 기업하는 수많은 경영자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반지를 비롯해 금장신구를 아낌없이 다 바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분명히 이 인구감소의 문제도 정부의 정책이나 마스크의 캠페인이 아닌,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39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절박한 ‘네 이웃’은 누구입니까? 독고(獨孤)노인들입니다. 노인이 병 들고 먹을 것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이웃입니다. 일생 자식위에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는 채 불운한 이웃이 되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 아들이 좋았지만 늙어지면 딸이 있어야 좋다고들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불효 했으니 복 받기는 다 틀렸구나!” 라고 탄식하며 하시던 말씀은 저의 조부께서 모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시던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은 누구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어 죽는 수가 하루에도 천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부아프리카에 한품 옥수수 가루가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주사 한대만 맞으면 살아날 불쌍한 아이들, 이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 당(黨)과 군(軍)간부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해도 그 외 하급인민들은 굶어죽는 이가 수백만일 때가 있 다 하니, 이들 북녘의 동포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그러나 선불리 돈을 건넬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곡식을 건네야 합니다. 돈을 건네준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북한당국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을 지혜롭게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농가에서 돼지를 길렀는데 어느덧 그 돼지가 예뻐져서 애완동물처럼 기르고 싶어졌습니다. 돼지를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깨끗하게 씻기고 사람처럼 옷도 입히고 목에 리본까지 만들어 달아주었습니다. 하루는 돼지를 방에 두고 시장 보러 다녀왔더니 방문은 열려있고 돼지는 없어졌습니다. “아무개야!” 돼지 이름을 부르며,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다 결국 집 밖에서 돼지를 발견했습니다. 돼지는 그 예쁜 옷을 입은 채 예전에 살던 오물 투성이의 우리에 들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끝내 주인은 돼지를 애완동물로 탈바꿈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태도와 자세가 변함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前) 삼성그룹총수가 훈시하시기를 “아 내 이외에는 다 바퀴라!” 했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의 생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섬기며, 나라를,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월례회 갖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

부산지방회 월례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0월 31일(목) 글로벌미션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성경봉독, 박인환 목사(글로벌미션교회)의 특송, 전임 지방회장 한순남 목사(반송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목사는 고후 10:1-6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을 사로잡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종 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높아진 부분들을 무너뜨려 주님께 복종하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다. 이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모두가 큰 은



혜를 받고 결단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정환무 목사(글로벌미션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전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주님의교회)의 기도로 시작해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인도로 지난 10/27집회 이후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의하

고, 지난 수양회에 모두 협력하고 동참한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서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되는 지방회를 이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후 글로벌미션교회의 섬김으로 가장 바닷가에서 장어구이와 해물과 전복죽으로 식사를 한 후 풍광이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교제를 하고 다음 월례회 때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월례회 갖고 군선교 후원금 전달

강원지방회 월례회

강원지방회(회장 권용덕 목사)는 지난 11월 5일(화) 원주샘물교회(담임 박규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유홍열 목사(영월월린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성은 목사(진부제일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규희 목사(원주샘물교회)의 된 3:12-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성백달 목사(예수사랑교회)



의 인도로 1. 예수한국 복음통일 2. 은혜진리 총만한 교단 3. 지방교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김형준 목사(웨이쳐치교회)의 헌금기도, 박순용 목사(원주총성교회)

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2부 월례회에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군선교 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 군선교 후원금을 전달했다.

백두대간협곡열차 타고 야유회 가져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윤철희 목사)는 11월 7일(목)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를 타고 빼어난 풍경을 감상하며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지방회원들은 백두대간협곡열차가 출발하는 경북 영주시 영주역 주차장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복음서가 ‘만 가지 은혜’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지방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지방회장 윤철희 목사의 설교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마쳤다.

이후 백두대간협곡열차에 탑승해 경치를 구경하고 중간 중간 정차하는 역에 내려 좋은 풍경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종점인 강원도 태백의 철암역에 도착한



후 철암탄광 역사촌을 둘러보며 과거 파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이후 태백시내로 이동해 맛있는 한우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으로 이동해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단

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철암역으로 돌아와 영주역으로 출발하는 백두대간협곡열차를 타고 영주역으로 이동했고, 마지막으 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가을산행 갖고 지방회의 단합과 발전 위해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10월 24일(목) 가을산행을 갖고 지방회의 단합과 발전,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집결 후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인사말과 출발기도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인솔에 따라 은혜로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전임 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섬김과 배려



의 손길로 풍성하게 마무리 한 후 회원들은 이번 하기 수양회에 함께해 준 이들에게 감

사 인사를 전하고, 가을산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가 될 것

경기남지방회 월례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11월 12일(화) 순복음잠빛교회(담임 오승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찬송 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북면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남수 목사(밝은빛교회)의 기도, 사모중앙당의 은혜로

운 특송 후에 지방회 부회장 서경오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목사는 엠 1:17-19 말씀을 본문으로 ‘좀 더 알기 원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사도요한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 영적 눈이 밝아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사회자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치료를 위해 중보기도 후에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헌금기도, 서경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인도로 월례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참빛교회에서 준비한 다

과 및 선물과 중식 후, 인근 카페에 모여 믿음과 사랑의 교제 후에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복음화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제2의 부흥의 물결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제1차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임원 및 시군대표 연석회의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지난 10월 17일(목) 오전 11시 홍성 평안하고든든한 교회(담임 오종설 목사)에서 제1차 본부 임원 및 충남 15개 시군 대표회장 및 본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해 상임대표회장 안준호 목사의 인도로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의 기도,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의 설교, 진동웅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오종설 목사는 속 4:6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

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운동을 위해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앞장서고 이를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남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임원단과 15개 시·군 대표회장 및 임원을 조직 완료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직을 위해 수고하신 본부 임원단들과 15개 시·군 대표 및 본부장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진동웅 목사는 이어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1977년 8월 15일-18일까지 여의도광장에서 민족복음화대성회 후 신현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각 교단 지도자들과 1978년 초에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후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해 *교회부흥운동 *복음화운동 *성령충만기도운동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7대 성회 후 복음화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불길기 되어 1,200만 성도를 자랑할 만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나라도 안정되어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군사력 6위를 자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다.

충남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임원조직에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 사무총장 김진태 목사 서기 김동현 목사 회계 함동주 목사를 임원으로 선출했다.

2부 회의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의 사회로 사무총장 서기, 회계보고에 이어 안건토의



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취임식 및 위촉예배를 12월 12일(목) 공주 리버스 컨벤션센터에서 드리기로 하고 본부 임원 및 15개 시·군 대표회장과 대표본부장을 인준했으며 민족복음화를 위해 연합성회를 개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오전 10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본부 임원 및 15개 시·군 대표회장 간담회를 갖고 네 가지 청원을 대통령께 건의를 요청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줄 것. 둘째, 잘못된 학교교육을 개혁할 것. 셋째, 공권력을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 넷째, 부정선거를 밝히고 공명선거를 위해 사전선거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청하고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경기남서지방회 월례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1월 11일(월) 순복음동방의빛교회(담임 이미경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찬양 인도에 이어 이광우 목사(총무)의 사회, 성경봉독,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벧엘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기인 목사는 삼상 17:40-49 본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을 보자. 다윗은 용감성도 있고 믿음으로 성장해 온 사람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죄를 지은 다윗은 회개했다. 회개하고 전투에 나간 다윗은 백전 백승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되돌아보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하자.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시고 상도 주신다. 성령충만함을 입어 회개하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목회를 감당하자"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가 나라와 교단 지방회 소속 각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전리외빛교회 오용득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회원점명과 안건토의 후 동방의빛교회에서 준비해준 오찬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E-mail:mok2677@naver.com/mok2677@kakao.com

여호와와 기(旗)를 세우라! (출 17:15)

예수이름교회

입당감사에배

2024.11.24(주일) 오후 3:00 2층 본당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1025번길 29-3

설교
장창영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백석대신대원 교수

담임
김진원 목사

*박촌동 성당 건물에 있는 곳에서
하트그린빌라와 할렐루야교회 사이
골목길로 들어오신 후 직진

*차량이용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회 주변이나 박촌휴먼시아아파트에
주차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인천 1호선 박촌역 하차
(4번 출구 방향)

문의 : 김진원 담임목사 010. 9038. 3499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고문	고문	충남대표회장	대표본부장	상임본부장	실무본부장	사무총장	제1부사무총장	제2부사무총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박중서 목사	정진모 목사	진동웅 목사	오종설 목사	안준호 목사	김병목 목사	김진태 목사	김석중 목사	최연범 목사	김동현 목사	함동주 목사	박인규 목사	이재웅 목사
감사	감사	천안시 대표회장	아산시 대표회장	당진시 대표회장	서산시 대표회장	태안군 대표회장	예산군 대표회장	홍성군 대표회장	서천군 대표회장	청양군 대표회장	부여군 대표회장	공주시 대표회장
이성수 목사	강신정 목사	한익상 목사	김병완 목사	우경식 목사	최장희 목사	김중남 목사	백돈걸 목사	함동주 목사	전용해 목사	김동원 목사	방효길 목사	김석중 목사
논산시 대표회장	금산군 대표회장	천안시 대표본부장	아산시 대표본부장	당진시 대표본부장	서산시 대표본부장	공주시 대표본부장	태안군 대표본부장	예산군 대표본부장	홍성군 대표본부장	서천군 대표본부장		
김인호 목사	신동성 목사	안병찬 목사	조이철 목사	김성환 목사	소대영 목사	이재웅 목사	김형철 목사	김영복 목사	이문용 목사	한철희 목사		

스펠라세계선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교단 재무, 순복음복된교회, 광주신학교 학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 파송과 후원, 인재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개설과 운영, 극빈자의 구제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실현을 사명으로 창립한 스펠라세계선교회(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교단 재무)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1일(주일) 오후 4시 선교회 사무실에서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송운수 목사의 사회로 조은주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순복음복된교회 조순자 사모의 특송, 문흥제일교회 원로 맹연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맹 목사는 롬 10:14-15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우리는 값없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신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최예자 전도사의 봉헌기도, 사회자의 광고, 맹연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곧바로 열린 2부 행사는 대표회장 최정



식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스펠라세계선교회’는 2019.10.10 선교법인으로 창립하여 초교파 회원 50여 명이 목적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달려 왔으며 제1대 김대진 선교사(필리핀 바기오)에 이어 제2대 김동수 선교사(필리핀 파나이)를 파송했고,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2020년 제1호 스펠라선교교회건축(현지인 제시 목사) 헌당하였으며, 2024년 칼리보 지역에 제2호 스펠라선교교회를 건축 임당 했고, 지금은 칼리보 주변 지역에 일명 대나무교회가 14곳이 건립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필리핀 안티폴로 임마누엘교회 최종삼 선교사, 일본 동경 우에노교회 백섭 선교사, 몽골 알타이 불락 할리온사 목사, 톨 바이온 선교사 등을 돕고 있고, CTS광주방송, 광주극동방송, 기독교호남신문 등에 매월 선교 후원을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며 바라기는 선교사 후원과 국내 선교가 더 확장되고, 예수심자가 생명의 복음과 성령충만으로 무장한 목회자 양성이 시급한 필리핀에 신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경과 사이타마현에서 노숙인·주민 전도사역

우에노임마누엘교회 히카리복음교회 사역에 힘보태

저희는 총복 괴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청년 연합으로 이루어진 엔학고레 미니스트리입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으로, 사사기 15장 말씀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샘이 터져 소생하였던 것 같이 열방을 위해 부르짖음으로 열방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며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여름에는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제주도 와 일본으로 매년마다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5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2차 일본선교를 준비하기 전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일본은 내가 사랑하는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5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부터 저와 저희 청년들은 일본 땅을 사랑하며 그 땅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올래로 일곱 번째 일본으로 선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선교의 주된 사역은 노숙인 사역과 노방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백섭 목사 시무)와 연합하여 도쿄 유명 관광지인 우에노공원에서 약 100여 명 가량의 노숙인 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위식(음 전양)으로 함께 예

배하며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노방전도 사역을 하시는 현지 목사님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일본어로 찬양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히카리복음교회(최남도 목사 시무)에서 2년째 머물며 목사님과 함께 마을 주변을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시는 현지 사역자분들의 모습을 통해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었으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신하며 경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복음에 빛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에게 보였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한 마케도니아인의 요청과 같이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땅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매년마다 그 땅을 밟으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괴산순복음교회 기호선 목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년 부흥사회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흥사회가 지난 11월 4일과 5일 춘천에서 가을산행기도회를 갖고
침체된 부흥사들의 성령충만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
체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김견수 목사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지도교문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배진기 목사 (인디옥교회)	진동용 목사 (은양은혜와진리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민찬 목사 (정신교회)	김양인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계영 목사 (새김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김영준 목사 (갈릴리온소망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문교교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이연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종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환무 목사 (사랑이넘치는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정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교회)	우광덕 목사 (선한목자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예정희 목사 (예수사랑교회)	김희자 목사 (새로와지는교회)	조미숙 목사 (주님의은혜교회)	박은정 목사 (엘림교회)	안명찬 목사 (순창아름다운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원로목사 찬양 페스티벌’ 개최

원로목사총연합 주최, 목청 높여 하나님의 은혜 찬양

2024 한국교회 원로목사 찬양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총재 김호일 목사, 대표회장 박장옥 목사) 주최하고 한국기부재단(대표 이주태 장로) 주관, 열린복지재단(원종문 목사) 특별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찬양제에는 한국원로목사교회 찬양대(단장 김성철, 지휘 홍요한), 한국감리교목사합창단(단장 박종규, 지휘 백선용), CBS 방송국 실버중창단(팀장 이종철, 지휘 김상훈), 사론양상불(단장 조병완), 실버미션찬양단(단장 유도열, 지휘 조동일), 예성유동찬양선교단, 은혜단비중창단(단장 조병완), 헬시바찬양단, 에어로폰 앙상블(지휘 김기홍)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환영사를 전한 대표총재 김호일 목사(전 대한노인회

장)는 “먼 길을 걸어온 믿음의 노병들은 지나온 숲과 계곡과 바다와 폭풍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라며, “사라진 과거가 아닌 또 다른 내일을 위해 평생 함께했던 복음을 노래하자. 믿음의 끝에서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자”라고 전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이번 대회를 총괄한 이주태 장로(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후원회장, 한국기부재단 대표회장)에 따르면, 참가자들 상당수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원로목사교회 예배에서 자신들만의 달란트로 예배를 섬겼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교제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내던 원로목사들은 “한번 한자리에 모두 모여 찬양의 축제를 열어 보자”라는 이주태 장로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화답했고, 그렇게 이번 찬양제가 마련됐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K-영농 기법 전수

강원대학교와 스리랑카에 감자 신규품종 시범 도입 실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삼일강 강원대학교와 감자 신품종 5개를 스리랑카 정부에 기부하고 시범 도입에 대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스리랑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이번 시범 도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현지 농림부와 감자 생산 개선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로 감자 신품종을 개발한 강원대 임영석 교수와 함께 손을 잡았다.

임 교수는 지난 23일 파종 시기가 11월인 감자 신품종(골든킹, 해피킹, 조이킹, 블레스, 로즈킹) 5종의 씨감

자 종서 1만여개를 직접 들고 현지에 방문했다. 현지 농업연구소 및 씨감자 생산시설 종사자와 대학교 관련자 75명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씨감자 교육 및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한국 감자 품종 소개를 시작으로 ▲조직 배양 및 육종 기술 ▲온실 생산 및 수경 재배 시스템 ▲해충 관리 ▲조직 배양 실습 ▲씨감자 생산 온실 및 농장 방문 등 이론과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스리랑카 총 감자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바둘라(Badulla) 지역에서 진행되며, 앞으로 약 2년 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현지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일본선교를 다녀와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명자는 영적 파수꾼,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길. 비록 그 길이 험작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예수 영광 위하여 나의 자존심 무덤에 덮는 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내 자야를 죽이는 길. 시련, 연단, 고초 통과해야 하는 길.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한계도,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길. 감사로 승리하는 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사수하는 길.

나는 오늘도 사명 위해 사명자로서 이 사명 죽기까지 감당하리.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하리. 인도 나갈랜드 선교 다녀온 후에 지난주에는 일본 오사카 노숙자를 위한 교회 대집회를 통하여 주일학교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가슴 가슴으로 전달되었다.

오사카 유니온교회는 많은 일본인들이 절망에 처해있을 때 노숙자가 될지언정 가족이나 친척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한국 목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전적으로 노숙자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신학교와 여러교회를 다니며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점점 일본교회가 쇠퇴 해지면서 1년에 1만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몇개월만 훈련받아도 평신도신학도들을 비어있는 시골 여러교회에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회, 이웃나라교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알아서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둘레길 일대에서 캠페인

이정숙(82세, 여) 씨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정희섭 씨(기증 당시 47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따뜻하고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는 목사를 꿈꿨다.

그러나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자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학업을 이어갔다. 졸업 후 대학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던 정 씨는 2017년 자신의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금요일 저녁, 정 씨는 갑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고통을 호소했다. 마침 교회에 가려고 준비 중이던 어머니 이 씨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뇌출혈이 발생한 정 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아들을 떠올린 어머니 이 씨는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결심했



고, 2017년 6월 15일 정희섭 씨는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후 5년간 가동이 어려울 만큼 큰 상실감 속에서 지냈던 이 씨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또 하나의 큰 상처였다. “아들 장기기증하고 돈 많이 받았겠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씨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편견 맞서는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들의 용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0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둘레길 일대에서 이정숙 씨와 같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40여 명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 사과 500박스 전달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제철 과일 지원사업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전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를 전달한다고 11월 1일(금)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진행 중인 제철 과일 지원사업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는 여름철 참외 나눔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제철 과일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문경에서 재배된 감홍 사과는 뛰어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로, 이번 지원을 위해 재단은 신뢰

받는 농장인 ‘애플스타’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심정은 이사장은 “우리는 지역 농가와 외의 협력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일 나눔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고(故) 심철호 회장이 설립한 재단으로, 심정은 이사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의 나눔 활동을 이끌고 있다. 심 이사장은 “아버지께서는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다.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우리 재단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쇄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추수감사절은 모든 삶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명절이라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입니다(출 34:22).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 1620년 9월 16일에 180 톤의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이 탑승합니다. 그 배는 65일 간 항해 끝에 12월 21일 미 대륙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였 습니다. 넓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풍랑을 맞고 신대륙에 도착하자 식량 부족, 토속병, 그리고 추위로 고생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교회부터 짓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질병과 영양실조로 44명이 사망하였지만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1621년 10월엔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789

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순례자들이 지킨 첫 감사절을 기념하여 국가 전체가 ‘추수감사절’ 을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 1863년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양식에 감사하여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날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풍요 속에서 양식 주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분명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는 자,
거듭난 생명이 분명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아 디딤돌로 여기는 자,
주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합니다.

지나온 시간에도 감사,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도 미리 감사...
현재 이 순간도 감사...
감사 거리로 충분한 과거, 현재가 아니었어도
은혜를 아는 자되어 감사하는 그런 사람
새사람이 된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아
갈보리 십자가...피 흘리는 주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붉은 피의 참 의미에 아멘 하는 자,
거듭난 사람 분명합니다.

멀리 이사 간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 갈 것을
권면하면서 쓴 글이다.

사 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 모두가 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군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아 나라고 발발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자유 진영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과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아울러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활용술 등 현대전 전술까지 익히게 된다. 그래서 북의 파병은 국제 안보를 넘어 한반도에 명백하고도 치명적 위협요소다.

북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군의 수준과 전투 능력,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군사 기조지식에 해당되는 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뭘 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 못 해 안달났느냐’며 정부 대응을 북풍 물리로 규정하며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황 분석팀 검토와 국정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 대해선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사회에 한국 정보기관이 아직도 고문이나 한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주는 자해성 발언이다. 스포츠팀 감독도 경쟁팀이 출전한 경기에 분석관들을 파견해 전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북한군이 실전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현장에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를 따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만일 우리가 그런 인력을 파견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한 것이다. 북한군 10,000명이 최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섬뜩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위장해 배치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왜? 더러운 전쟁에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이라는 말이다. 자기 군복을 입고 독자적 지휘명령에 따라 싸우는 것이 파병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파병도 못되고 용병이라는 말이다. 즉 김정은은 군대 아닌 외화 벌이용 ‘전쟁 노동자’를 파견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모방했다’고 보도를 했다. 그러나 그 보도는 잘못되었다. 베트남에 갔던 한국 군인은 용병이 아니고 공식 참전이었다. 미군과 차별화된 전술로 맹위를 떨친 맹호, 백마, 청룡부대는 부대 마크도 선명한 우리 군복을 입고 57만여 회 작전을 독자 수행했다.

60년 전 베트남 파병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빼내 베트남전에 투입하려 했다. 미군이 일단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군사, 경제력에서 북에 밀리던 한국으로선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다. 박정희는 미군 대신 한국군을 보내겠다는 제안으로 미군 차출을 막은 것이다.

안보적 고려에서 출발한 박정희의 결단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한·미 동맹은 함께 피흘린 혈맹으로 격상됐고, 한국군 전력은 획기적으로 현대화됐다. 구식 M1소총이 M16으로 교체된 것도 이때부터다. 미국에게서 장비 제조 권한을 받아낸 박정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설립해 군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베트남 파병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도 불가능했다. 장병들이 악착같이 모아 송금한 달러 수당, 기업들이 벌어들인 공사 대금이 유입되면서 척박한 한국 경제에 활력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 귀중한 외화가 초기 자본으로 축적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잣돈으로 쓰인 것이다.

북한군 용병 1인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한다. 군인들이 목숨 값으로 받은 돈은 김정은은 금고로 들어가 통치 자금이나 호화 사치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다. 남한의 파병과 북한의 용병이 다른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북한 군인의 집단 탈북 루트가 되지 않을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8-20)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준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